

# 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.....	1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2. 주간 이슈 .....	4
----------------	---

- 원/엔 환율 급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

## 주요 동향

## ◇ 미국, 1/4분기 GDP 전분기 대비 0.2% 성장

- 악천후와 달러화 강세 등에 따른 내·외수 부진 등으로 시장예상치(1.0%)를 하회하며 전분기(2.2%) 대비 큰 폭으로 하락
  - GDP의 68.5%(‘15.1분기 기준)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이 전분기(4.4%) 대비 크게 하락(1.9%)
  - 기상여건 악화, 서부항만 노사분쟁, 달러화 강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(-7.2%)하며 순수출도 감소(-1.3%)

※ GDP 성장률(% , 전기비연율) : 4.6(‘14. 2/4)→ 5.0(3/4)→ 2.2(4/4)→ 0.2(‘15. 1/4)

※ GDP 성장률(% , 전년동기비) : 2.6(‘14. 2/4)→ 2.7(3/4)→ 2.4(4/4)→ 3.0(‘15. 1/4)

- 주요 IB들은 1/4분기 성장세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2/4분기 이후에는 성장률 반등 예상 (바클레이즈, 도이체 방크 등)

## ◇ 피치,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(4.27)

-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+에서 A로 한 단계 강등, 신용등급 전망은 ‘안정적’으로 제시
  - 한국(AA-)보다 두 단계 아래로, 무디스는 이미 지난해말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A1등급으로 낮춘 바 있음.
- 올해 말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44%로 예상되는 등 부채상환 능력 저하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주요인
  - 다만, 일본의 기초 체력이 나쁘지 않고, 최근 엔화약세로 일본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으며, 일본 국채 대부분을 일본인들이 보유해 시장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

## 주요 동향

### ◇ 무디스,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강등(4.29)

-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'Caa1'에서 'Caa2'로 한 단계 강등, 신용등급전망은 '부정적'으로 제시
  - 극심한 유동성 부족과 함께 국제채권단과의 합의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주요인
- 블룸버그 서베이 결과(4.30), 전문가의 52%는 그렉시트를 예상했으며, 이중 18%는 금년 중, 22%는 내년 중, 12%는 내년이후로 예상
  - 1월에 실시한 서베이에서는 31%가 그렉시트 예상

### ◇ 브라질 중앙은행, 기준금리 13.25%로 인상(4.29)

- 헤알화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'09년 1월(13.75%) 이후 가장 높은 수준
  - 브라질 중앙은행은 '16년까지 물가상승률을 4.5%로 낮출 계획
- 금년 들어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, 금년 들어 G20국가 중 기준금리를 인상한 국가는 브라질이 유일

※ 헤알화환율 추이(헤알화/미달러) : 2.68('15.1)→ 2.84(2)→ 3.21(3)→ 3.01(4)

※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(%) : 6.69('15.1)→ 7.36(2)→ 7.90(3)→ 8.22(4)

※ 기준금리 추이(%) : 11.75('14.12)→ 12.25('15.1)→ 12.75(3)→ 13.25(4)

### ◇ 한국, 4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8.1% 감소, 무역수지 85억 달러 흑자

- 유가하락, 주요품목의 수출단가 하락, 세계 교역증가율 둔화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
  - (상품별) 컴퓨터, 반도체 등 증가, 석유제품, 가전, 석유화학 등 감소
  - (지역별) 최근 미국성장률 둔화로 對미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는 등 중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

※ 상품별 수출증가율(%) : 컴퓨터(37.3), 반도체(7.5), 일반기계(1.2), 선박(-7.9)  
석유제품(-43.3), 가전(-24.3), 석유화학(-20.1) 등

※ 지역별 수출증가율(%) : 중동(1.4), 일본(-12.6), EU(-11.9), 중국(-5.2), 미국(-2.7) 등

## 참고자료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① 외환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 4. 24	'15. 5. 1	전주비
₩/US\$	1,088.5	1,079.2	1,074.3*	△4.9
₩/100¥	910.12	903.4	903.6*	0.2
CNY/US\$	6.2020	6.1948	6.2010	0.0062
¥/US\$	119.09	119.07	120.16	1.09
US\$/€	1.2174	1.0854	1.1219	0.0365

\* 15.4.30자 기준(5.1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)

### ② 채권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 4. 24	'15. 5. 1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10	1.77	1.84*	0.07
미국 국채(10년)	2.17	1.91	2.11	0.20

\* 15.4.30자 기준(5.1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)

### ③ 주식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 4. 24	'15. 5. 1	전주비
한국 KOSPI	1,915.59	2,159.80	2,127.17*	△32.63
미국 DJIA	17,823.07	18,080.14	18,024.06	△56.08

\* 15.4.30자 기준(5.1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)

### ④ 해운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 4. 24	'15. 5. 1	전주비
BDI 지수*	780	600	591	△9
HRCI 지수**	538.1	730.5	749.5	19.0

\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\*\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### ⑤ 유가

(US\$ / 배럴)

유 종	'14년말	'15. 4. 24	'15. 5. 1	전주비
WTI유 현물	53.27	57.15	59.15	2.00
Brent유 현물	57.33	65.28	66.46	1.18
두바이유 현물	60.11	58.27	64.24	5.9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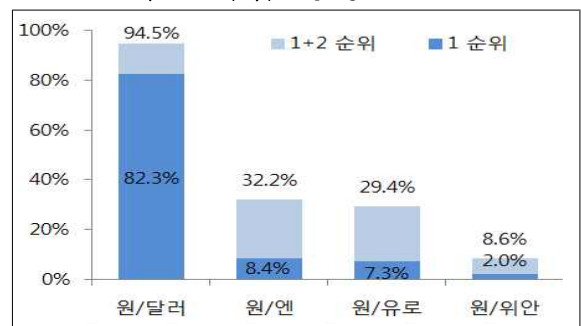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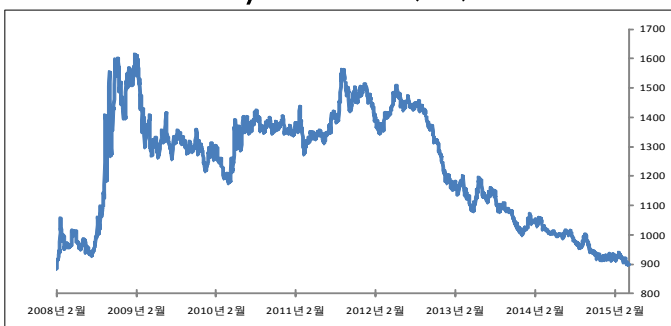
◆ 최근 원/엔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부진 장기화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, 수출기업(대기업 126개, 중소·중견기업 327개, 3/10~16 실시) 설문 조사를 통해 원/엔 환율 변동의 영향과 대응 방향 등을 분석

## 1. 원/엔 환율 동향

- 원/엔 환율이 900원/100엔 수준을 하회하며 수출기업 부담 증가
  - 아베노믹스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엔화의 영향으로 원/엔 환율은 2014년 이후 약 10% 정도 하락함.
  - 원/엔 환율이 900원/100엔 수준을 하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임.
  - 원화는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기조로 엔화대비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.
  - \* 경상수지 추이(억달러) : 65.8(1월) → 64.4(2월) → 103.9(3월)

## 2. 원/엔 환율 하락의 영향

- 국내 수출기업중 약 30%가 원/엔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음
  - 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영향이 큰 환율은 원/달러(94.5%), 원/엔(32.2%), 원/유로(29.4%), 원/위안(8.6%) 순



- 엔화 결제 비중(3.0%)이 유로화 결제 비중(5.3%)보다 낮고, 일본 수출 비중(5.6%)도 유럽 수출 비중(9%)보다 낮지만, 일본과 수출경합도\*가 높아 원/엔 환율 영향이 원/유로 환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.

\* 수출 결제통화 비중 : 달러화 86.3%, 유로화 5.3%, 엔화 3.0%, 위안화 2.2%

\* 수입 결제통화 비중 : 달러화 83.8%, 유로화 5.8%, 엔화 5.0%, 위안화 4.2%

\* 수출경합도 : 양국의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지표

- 한일 수출경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3년 0.5를 넘어섬.(양국의 수출품 구성이 50% 이상 유사)

\* 한일 수출경합도: 0.446('08) → 0.467('10) → 0.475('11) → 0.481('12) → 0.501('13)

- 문화콘텐츠(62.5%), 선박(46.9%), 철강 및 비철금속(43.1%) 등의 산업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.

- 문화콘텐츠 산업은 일본 수출 비중이 30.2%로 높아 엔화 영향이 크고, 선박과 철강 산업의 경우 일본업체와 경합도가 높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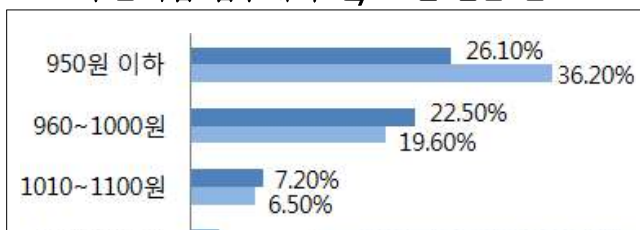
- 전기전자(32.7%)와 자동차(30.6%) 등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음.

## □ 현재 원/엔 환율은 수출기업의 업무계획 환율 대비 8% 낮은 수준임

- 기업들의 2015년 업무계획 수립 기준 원/100엔 환율 및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 환율은 모두 평균 972.2원으로 집계

- 현재('15년 평균 919원) 수준에서는 업무계획 대비 가격경쟁력 5.6% 하락

<수출기업 업무계획 원/100엔 환율 분포>



- 예상 손익분기 환율은 섬유류(1,000원), 자동차부품(990원), 석유화학(984원) 등이 현재 환율보다 80~100원 이상 높아 어려움 가중

- 문화콘텐츠(930원), 철강(943원) 등은 손익분기 환율이 낮으나, 이미 현재 환율이 분기점 하회

- 원/100엔 환율 10% 하락시, 수출액 4.6%·영업이익 3.7% 감소 예상
  - 원/엔 환율 영향 기업(전체 응답기업 中 32.2%)들의 경우, 원/엔 환율 10% 하락시 수출액이 감소하는 기업 비중이 55%, 10% 이상 감소하는 기업은 약 31%로 나타남
  - 산업별로는 일본 수출 비율이 높은 문화 콘텐츠(△6.7%)와 일본과 수출 경합이 높은 기계류(△8.7%), 석유화학(△6.3%), 선박(△4.7%) 등의 수출액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
  - 원/엔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(△5.6%)이 대기업(△1.8%)보다 수출액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
  -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기업의 비중이 47.8%로, 10% 이상 하락하는 기업은 28%로 나타남.

### 3. 향후 원/엔 환율 전망 및 시사점

- 향후 원/엔 환율의 약세는 다소 둔화되겠으나, 900~910원/100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
  - 엔화의 약세는 지속되겠으나 일본의 경상수지 회복 등으로 영향으로 약세 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
    - \* 일본 경상수지(억달러): 37('14.11월) → 19('14.12월) → 5('15.1월) → 120('15.2월)
  - 한은의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, 수출증가율 부진 등의 영향으로 원/달러 환율이 연중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

#### <주요 환율 전망>

	15년 3/4분기	15년 4/4분기	16년 1/4분기
원/100엔	906	906	909
원/달러	1,123	1,133	1,145
엔/달러	124	125	126

자료 : 블룸버그(주요IB 전망 중간값), 원/100엔 환율은 원/달러, 엔/달러 환율 전망을 통해 유추



□ 원/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에는, 원/엔 환율 하락에 따른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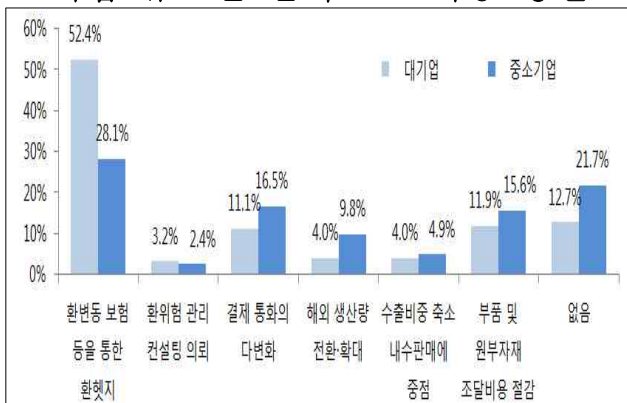
- 美달러 강세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, 원/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및 채산성 개선 효과로 엔低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.

\* 원/달러 환율 10% 상승, 원/엔 환율 10% 하락 동시 발생시 예상 수출액 변화 (원/엔 영향 기업)  
: 하락 29.7%, 큰 영향 없음 30.4%, 증가 30.4% → 평균 수출액 -0.1% 하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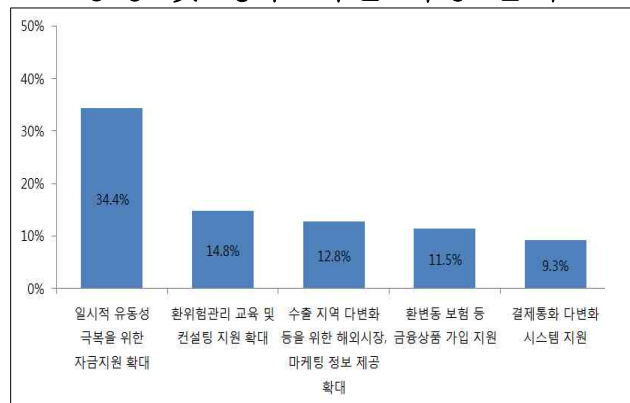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은 중심으로 환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

- 대기업은 환헷지 금융상품(52.4%)을 통해 환리스크에 대응하는 반면, 중소기업은 28.1%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, 아예 대응책이 없는 경우도 21.7%에 이르고 있음.
- 환율 급변동 등 수출 여건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은 유동성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(34.4%), 환위험관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(14.8%) 지원을 선호
- 다음으로는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 정보 제공 확대(12.8%), 환변동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지원(11.5%), 결제통화 다변화 시스템지원(9.3%) 등의 순으로 요구

<기업 규모별 환리스크 대응 방안>



<당행 및 정부 지원 희망 분야>



확인자	소 장 임 병 갑
작성자	팀 장 이 재 우